

해남시네마·청소년누림문화센터 이용객 10만 돌파

2개 상영관 152편 영화 상영
댄스 연습실·북카페 등 큰 인기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개관 1년 6개월...문화거점으로



청소년 누림문화센터 쿠킹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요리체험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와 해남시네마가 문화 향유 공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두 공간은 최근 함께 누적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 여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 7월 작은영화관·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해남읍 해리에 개관해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개관 1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해남시네마는 관람인원 7만 6076명,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이용자 3만 432명으로 총 누적 이용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20여년만에 해남에 문을 연 영화관인 해남시네마는 2000년대 초반을 마지막으로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그동안 지역에 영화관이 없어 타 지역까지 영화를 보러 다니던 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있다.

136석 2개의 상영관에서 연중 무휴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은 최신 개봉영화를 비롯해 군민들이 원하는 기획영화, 독립·예술영화 상영으로 이용자들

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152편의 영화를 상영한 가운데 관객수와 좌석 점유율에서 전국 작은영화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정기상영하는 씨네브런치 행사를 비롯해 시청각장애인 영화상영, 각종 기획전 등 수준높은 영화 상영은 물론 가정의 달 등 매월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문화공간 확보에 특화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 평균 이용자가 110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넓은 공간과 거울, 음향장비를 갖춘 댄스 연습실, 각종 악기와 녹음시설, 매월 최신곡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 노래방 기기가 있는 개인연습실, 밴드 합주가 가능한 단체연습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도

서를 중심으로 2600여권을 보유한 북카페는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쉼터 욕망정원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보드게임, 네일아트, 족석사진 등 동아리 활동실에서 청소년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기별, 방학중으로 구분해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체험강의를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면지역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등 명실상부 청소년 맞춤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합창단과 중학생 밴드팀도 운영하는 한편 올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도 다채로운 13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시네마·청소년누림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화관을 둘러싼 식당들과 편의점, 식료품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크게 증가하고,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청소년은 물론 가족단위 즐길거리가 한층 풍성해 졌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수준 높은 문화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드론·AI 낙지자원 관리' 신안군 스마트빌리지 사업 정보통신부 우수등급 인증

신안군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드론·AI 기반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부터 지능정보기술(IGT)을 활용해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및 생활 편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신안군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총 13억 5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연속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갯벌어장의 드론·인공지능 기반 낙지자원량 파악, IoT기술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 및 알람 서비스, 갯벌환경 모니터링 원격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신안갯벌은 세계최고의 갯벌환경을 토대로,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낙지 생산지이다"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현명한 자원관리를 통해 갯벌어장의 건강성 유지와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7곳 선정

물품구입비·홍보비 등 지원

목포시는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7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집함으로써 침체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공기빛깔 사업(쌔앗, 새싹, 열매 3단계)과 돌봄 사업을 위한 행복드림돌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공기빛깔 사업 중 쌔앗단계는 목포시에서 자체 선정하는데 사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 '마을공동체 담당' 등 12곳을 선정했다. 새싹과 열매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사

업으로 올해 5군데가 선정되어 새싹은 1000만원, 열매는 2000만원, 돌봄사업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새싹 단계는 '부흥동마을공동체'가 선정됐고, 열매 단계는 '목화이야기' 1곳이 선정됐다. 또한 돌봄공동체 사업은 '주주모임'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물품구입비, 공간개선비, 홍보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마을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해수청 목포·진도해역 시설항로표지 관리 실태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진도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항로표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사진>

시설항로표지는 개인적인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등대, 부표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천사대교 교량표지 운영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83개사 360기와 위탁관리사 6개사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고시기능 유지 여부, 선박보험 가입 여부, 안전시설 적정성 여부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관할 구역에 현재 해상교량 등 해양구조물이 다수 설치돼 있고 해상교각과 해상풍력 구조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실태점검과 함께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상품권 모바일 10% 상시 할인
착한가격업소 20곳 추가 지정

진도군이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동결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진도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

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아리랑 상품권 모바일 10% 상시 할인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난해 대비 10% 이상 물 절감 세대에 절감량 100% 감면 ▲물가안정 캠페인 릴레이 이벤트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따른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합리적인 소비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상반기 귀농·귀촌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생 모집

영광군이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농기초 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3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1회 화요일마다 4시간씩 진행돼 (견학 8시간 포함) 총 9회 40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농촌의 이해 및 성공적 귀농 설계,

농산물 마케팅 등 농업농촌의 기본 내용뿐 아니라 딸기, 고추, 과수 등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작목별 재배기술도 함께 진행된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신규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서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55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중수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군, 15억원 규모

취약계층 자활 사업 추진

자활근로사업단 9개 운영

완도군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15억원 규모의 자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활 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정해영농 ▲반짝반짝 세탁 ▲시설관리 ▲생선 다듬기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 교육을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활 기업으로 구구팔팔헬스, 금비산업, 희망집수리사업, 새하얀 청소용역, 삼례산업 등 5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소득계층 및 자부담 비중 등에 따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 4개 사업(6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11개 읍·면 121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암 한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영암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속도...태양광 등 1215곳 설치

국비 51억 등 사업비 102억 확보

영암군이 민선8기 에너지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군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용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1억원 등 102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11개 읍·면 1215개소(태양광 1071개소, 태양열 144개소)에 신재

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4년 이후 자립마을 50% 이상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목표로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주택단열개선, 신재생에너지 가로 등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지역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국내 박람회 참가비 지원

무안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택배비와 국내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대상은 공장 등록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마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초기)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군은 3000만원을 투입해 15개 업체에 택배비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제조업 기업체로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초기)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군은 3600만원을 투입해 12개 업체에 기본 부스비, 장치 임차료, 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인건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